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

황혜민¹, 김주옥*
¹부천대학교 간호과

Effects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using infant model

Hyemin Hwang¹, Juok Kim^{1*}

¹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하는 S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48명의 산모이다.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은 2주 동안 3차례의 구두교육 및 실기교육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산모의 신생아 양육 지식정도는 교육 전 2.27점에서 교육 후 2.81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t=-7.049, p<.001$) 부모효능감의 점수도 교육 전 2.69점에서 교육 후 2.8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5.545, p<.001$) 교육 만족도는 교육 후 4.12점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 후 산모들에게 구두 교육과 아기모형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접목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산모들의 양육지식 및 부모효능감을 증가시켜 새로운 모성역할 획득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s of a newborn care program (NCP) using an infant mod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8 mothers in the G city postpartum center. The NCP educational program was provided orally and via demonstration three times in two weeks. Pre and post questionnaires were given and the data was collected in July 2013 to September 2013. The findings suggest that knowledge of the newborn level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NCP (Mean=2.27 vs. 2.81, $t=-7.049, p<.001$). Parenting efficacy level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NCP (Mean=2.69 vs 2.89, $t=-5.545, p<.001$). The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levels was 4.1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viding a structured NCP educational program will be useful for adapting and obtaining a new mother role by improving the level of parenting efficacy and newborn care knowledge.

Key Words : Care, Education, Mothers, Newbor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산욕기(postpartum period)는 출산이라는 한 개인의 생애에 있어 큰 변화를 통해 어머니가 되는 발달전환(developmental transition)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건강한 전환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역할과 관련된 행동의 숙련이 발생하는 데 반해 비효과적인 전환은 역할 부족

(role insufficiency)을 가져온다고 하였다[1]. 즉 이 시기에 어머니 역할에 대해 수용하고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건강한 모성 전환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상대적 지위 향상 등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한국 여성의 결혼 및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로 2010년 1.22명의 수준으로 나타났을 뿐 아

*Corresponding Author : Ju-Ok Kim(Bucheon Univ.)

Tel: +82-32-610-0833 email: amicaa@bc.ac.kr

Received April 30, 2014

Revised (1st May 22, 2014, 2nd May 28, 2014, 3rd June 10, 2014)

Accepted June 12, 2014

나라 같은 해 여성의 첫 아이 출산연령이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이르렀다[2].

또한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은 가사활동, 자녀 양육과 같은 과거 성 분업화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핵가족화로 인해 산후 관리 및 신생아 돌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인적지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건강한 모성 전환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성 역할은 출산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만 후 실제 아기를 돌보는 활동으로 학습되는 것이므로[3], 신생아 돌봄 교육은 모성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모의 교육 요구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퇴원 시 산모의 교육 요구가 가장 높은 시기로 나타났으나 초산모와 경산모의 간호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4], 퇴원 직후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시기는 모든 산모의 모성 역할 교육에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산후조리원은 산육기 동안 집안 어른들로부터 산모의 신체 회복과 양육의 도움을 받았던 전통적이고 독특한 한국 문화로 인해 생겨난 기관이다[5]. 산후조리원의 정확한 이용 통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6년 첫 개원이래로 산후조리원의 지속적인 양적 팽창은 많은 산모들이 병원 퇴원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산모의 병원 퇴원 후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모성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정확하고 올바른 신생아 돌봄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부모효능감은 자기효능감[6]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부모로서 목적 달성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7]. 즉 산모의 바람직한 모성 역할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신생아 돌봄 지식과 높은 부모효능감의 향상이 필요하다.

기존의 산후조리원 신생아 교육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디오와 책자를 이용한 교육방법 연구들이 대부분이며[8,9], 산모를 대상으로 실제와 유사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실제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아기모형을 이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후 양육지식, 부모효능감 및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조리원의 산모를 대상으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 교육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 전·후 산모의 양육지식의 변화를 확인한다.

셋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적용 전·후 산모의 부모효능감 변화를 확인한다.

넷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산모의 만족도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보는 연구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이며, 근접 모집단은 B시 S병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자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 2) 산후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문제가 없는 자

연구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표본 수는 G*Power 3.0.10[10]을 이용하여, effect size $d=4$,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80%로 하였을 때 41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산모 5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일반적인 특성과 사전 양육지식 정도와 부모효능감을 조사하였다. 이후 2주간의 본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마치고 사후 양육지식정도, 부모효능감, 교육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종교 유무, 교육 정도, 직업 유무, 가족 수입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출산 관련 특성으로는 임신주수, 신생아 체중, 신생아 성별, 신생아 출생순위, 분만방법, 퇴원 후 산후 조력자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신생아 양육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은 Kwak이[11] 개발한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정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생아 목욕법, 태출 관리, 예방 접종, 아기의 주변 환경관리, 모유수유 방법, 아기의 이상 증상의 5가지 하부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거의 모르겠다’(1점)에서 ‘아주 잘 알고 있다(4점)’까지 응답이 가능한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양육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wak[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0$ 이었다.

2.3.3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2]이 개발한 부모효능감 척도인 P. S. O. 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Shin이[13] 번안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 영역으로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 5문항과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4문항,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이 가능한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의[13]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01$ 이었다.

2.3.4 교육 만족도

신생아 교육 프로그램 교육 만족도는 Choi[14]가 개발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이 가능한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8]의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91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1$ 이었다.

2.4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2.4.1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로 연구자들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여성병원, 국내 산후조리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10년 이상의 산부인과 경력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아동간호학, 여성간호학 전공교수 2인, 산후조리원 간호과장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2.4.2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분만 후 교육시기별 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요구도 조사를 보면 분만 후 첫 1~6일 동안에는 수유, 제대관리, 신체적 증상에 대해 산모의 간호교육 요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7~13일은 일상적인 간호내용에 대해, 2주가 될수록 신생아의 안위와 신체적인 이상 증상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신생아돌봄 프로그램은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여 2주 동안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소책자를 읽으면서 아기모형을 이용한 교육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하였다. 1회기에 수유, 트림시키기, 대소변 관리, 유방 관리, 생리적 황달, 아기 모형을 이용한 신생아 목욕과 제대관리 교육 1회, 2회기에는 피부 관리, 기본예방접종 교육, 산모유방관리, 3회기에는 신생아의 신체 사정 시 이상소견 발견과 관리, 신생아 부모의 직접 신생아 목욕과 제대관리 실습 교육 1회 및 퇴원 후 환경교육 및 퇴원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2.4.3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프로그램 적용절차와 방법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은 연구자 1인이 담당하였고, S여성병원 산후조리원내 교육실에서 실시하였다. 사용한 아기모형(MI07-4, 주식회사 Sakamoto, Janpan)은 신생아의 몸무게와 유사한 실리콘 재질의 모형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소책자를 대상

자에게 배부하고 한줄 씩 읽어주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산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하였다. 교육의 질적 효과를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산모는 3-5명으로 제한하였다. 1회기 때 아기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대상자가 해보도록 하는 실습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시범과정에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중재기간은 산모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으며, 한 회기 때마다 약 30-40분, 총 90분~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5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총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이다. 먼저 S산후조리원에 방문하여 간호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 후 51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프로그램 시작 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기입하도록 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2주간의 구두교육과 아기모형을 활용한 실습 교육 및 퇴원교육이 끝나는 2주차에 사후조사를 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주요 변수들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 전·후 산모의 양육지식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돌봄 교육 전·후 산모의 부모효능감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생아 관련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1.6세로 30세 이상이 31명(6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이 37명(77.1%)을

차지하였다[Table 1].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23명(47.9%)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을 가진 대상자는 26명(54.2%)이었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월 400만원 이상이 27(56.3%)명이었다.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이 32명(66.7%)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퇴원 후 산후조력자가 친정인 경우가 22명(45.8%)로 가장 많았다.

신생아 관련 특성 중 성별은 여성이 29명(60.4%)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 번째 아이가 36명(75.0%) 가장 많았다. 출생 시 체중은 3.0-3.4kg가 27명(56.3%)이었으며 모유와 분유의 혼합수유를 하는 경우가 30명(62.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48)	
		N	%
Age in years	24-29	17	35.4
	30-34	19	39.6
	35-39	11	22.9
	40-44	1	2.1
Religion	Yes	23	47.9
	No	25	52.1
Education	≤High school	11	22.9
	College school	31	64.6
	≥Graduate school	6	12.5
Occupation	Yes	26	54.2
	No	22	45.8
Delivery method	Normal	32	66.7
	C/S	16	33.3
Family income (10,000 won)	<200	1	2.1
	200-390	20	41.7
	≥400	27	56.3
Birth order	1st	36	75.0
	2nd	11	22.9
	3rd	1	2.1
Care assistant	Self	20	41.7
	Native home	22	45.8
	Husband's home	3	6.3
	Etc	3	6.3
Feeding method	breast milk	16	33.3
	breast milk+dry milk	30	62.5
	Dry milk	2	4.2
Infant sex	Male	19	39.6
	Female	29	60.4
Infant weight (kg)	2.5-2.9	7	14.6
	3.0-3.4	27	56.3
	3.5-3.9	11	22.9
	≥4.0	3	6.3

3.2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 전·후 산모의 양육지식, 부모효능감, 교육 만족도

3.2.1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전·후 양육지식 정도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신생아 부모의 양육지식의 평균 점수는 2.27±0.44점에서 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2.81±0.3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7.049, p<.001$)(Table 2). 신생아 부모의 문항별 양육지식 점수의 차이를 보면 목욕 관련 문항 ($t=-5.857, p<.001$), 제대관리 관련 문항 ($t=-5.986, p<.001$), 예방접종관련 문항($t=-4.554, p<.001$), 신생아 주변 환경 관리 문항($t=-7.848, p<.001$), 수유관련문항($t=-4.518, p<.001$), 이상 증상 간호 관련 문항 ($t=-6.030, p<.001$)으로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2] Mean Differences in knowledge Levels Pre-test and Post-test (N=48)

Contents	Pre test	Post test	t	p
	Mean±SD	Mean±SD		
Bathing	2.45±0.53	3.00±0.43	-5.857	<.001
Umbilical cord care	1.95±0.79	2.69±0.65	-5.986	<.001
Vaccination	2.08±0.87	2.63±0.64	-4.554	<.001
Circumference care	2.55±0.57	3.24±0.46	-7.848	<.001
Feeding	2.35±0.40	2.75±0.44	-4.518	<.001
Abnormal symptoms care	2.15±0.52	2.69±0.41	-6.030	<.001
Total	2.27±0.44	2.81±0.33	-7.049	<.001

3.2.2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전후 부모효능감 정도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산모의 부모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2.69±0.35점에서 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2.89±0.3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5.545, p<.001$)(Table 3). 부모효능감의 문항은 세 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인지적 차원의 부모효능감 평균이 교육 참여 전 2.69±0.46점에서 교육 후 3.02±0.47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5.836, p<.001$). 둘째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 대한 점수는 교육 참여 전 3.00±0.53점에서 교육 후 3.27±0.6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717, p<.001$). 셋째 정서적 차원의 부모효능감의 불안감과 좌절감은 교육 전 2.54±0.76점에서 교육 후 2.46±0.76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3] Mean Difference in Parenting efficacy Levels Pre- and Post-Program (N=48)

Items	Pre test	Post test	t	p
	Mean±SD	Mean±SD		
Efficacy	2.69±0.46	3.02±0.47	-5.836	<.001
Anxiety	2.54±0.76	2.46±0.76	1.153	.255
Interest	3.00±0.53	3.27±0.61	-3.717	.001
Total	2.69±0.35	2.89±0.39	-5.545	<.001

3.2.3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교육에 참여한 48명의 대상자 전원이 응답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총점은 4.12±0.5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본 교육프로그램 수강 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간호사는 신생아 돌봄 교육 제공시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는 항목으로 평균점수는 4.42±0.54점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간호사는 산모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는 항목의 점수가 평균 점수는 4.37±0.53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는 항목의 평균점수는 3.67±0.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고찰

본 연구는 분만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뒤 그 효과를 확인하고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에서 이루어진 구두 교육이나 책자 교육이 아닌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교육에 구두 교육과 아기 모형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접목시켰다. 그 결과 산모의 양육지식 점수가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7.049, p<.001$). 특히, 세부 행위별 양육지식의 점수를 살펴보면, 교육 전 가장 지식정도가 낮은 항목은 제대간호, 예방접종, 이상증상, 수유, 아기목욕, 환경관리 순서로 나타났으며 교육 전후의 점수 차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제대간호, 환경간호, 예방접종, 아기목욕, 이상증상, 수유 순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돌봄 프로그램 교육 후 양육과 신생아 돌봄에 대한 지식 점수를 세분화하여 비교한 기존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Table 4] Participant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N=48)

Items	Mean±SD
1. Nurse's sincere attitude	4.42±0.54
2. Explain easily	4.31±0.62
3. Appropriate response about client's questions	4.37±0.53
4. Interesting contents of newborn care education	4.21±0.77
5. Appropriate contents	4.23±0.69
6. Adequate time of education	4.17±0.71
7. Adequate number of education	3.71±0.80
8. Provides feedback about contents of education	3.67±0.93
9.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newborn care after education	4.06±0.86
10. Education contents are actually helpful to newborn care	4.08±0.98
Total	4.12±0.57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산모들이 질병시의 신호나 증상, 신체적 성장발달 평가, 호흡 곤란시의 관리법, 발작시의 관리법과 같이 이상증상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다고 한 Cho 등[16]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퇴원 후 신생아 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제대간호, 예방접종, 이상증상, 수유에 대한 지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75.5%) 초산모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간호, 환경간호, 예방접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언급된 내용들이 출산 후 또는 산후조리원 입소 후의 산모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지식은 부모의 태도, 마음의 준비, 신생아의 특징, 아기의 성장발달, 아기목욕, 수유 등 아기 돌보기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산후 산모에게 정확한 신생아 돌봄 내용을 교육하여 인지, 정서적 및 기술적 부모로서 대비하게 하는데[17] 큰 도움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은 산모의 양육지식뿐만 아니라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5.545, p<.001$). 대상자의 부모효능감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인지적 차원의 부모효능감($t=-5.836, p<.001$)과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유의미하게 증가($t=-3.717, p<.001$)한 반면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은 교육 전 보다 교육 후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Kim과 Jung[9]의 연구에서 산후조리원 입소 후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공할 때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상승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부모효능감은 Bandura[6]의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부모로서 목적 달성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7].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75.0%)의 대상자가 초산모인 점으로 볼 때 이들이 처음으로 부모가 된 상황에서 스스로를 부모로 평가하는 부분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만으로 인지적 차원의 부모효능감, 부모로서의 관심과 흥미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으로 성취경험과 언어적 설득이 있다[18]. 본 교육 프로그램은 아기모형을 실제로 사용하여 산모가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고 산모들이 실제와 유사한 모형으로 실습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과 실습 중 지속적인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 대상자가 부모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3차례의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자의 인지적 차원의 부모효능감과 흥미와 관심 영역의 효과가 모두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의 인지적 차원과 관심과 흥미에서 나타난 결과와 달리 정서적 차원의 불안과 좌절감에 대한 영역에서는 교육 전 보다 교육 후에 평균점수의 감소는 있었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자신감, 흥미는 높아졌으나 아직 신생아와 직접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 실제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Cho 등[19]의 연구에서 산모의 자신감이 상승하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다는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신생아돌봄 교육을 통해 양육지식과 부모효능감이 상승하면 더불어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12±0.5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 교육프로그램 수강 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간호사는 신생아 돌봄 교육 제공시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는 항목이고 뒤를 이어 ‘간호사는 산모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는 항목이다. 그러나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는 항목의 평균 점수는 3.67±0.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은 정확한 의학적 지식과 관련된 임상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모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과 정확한 수행과 시범이 필요하며 근거 기반을 둔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자의 역량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습을 통한 학습의 효과는 80%가 피드백을 통해 일어나므로 실습시간의 2~4배를 할애하며, 다수의 학습자에게 실시할 경우에는 더 길게 배정해야 한다[20]. 앞으로 산모 교육 연구에서는 실습 수행 시간을 좀 더 길게 배정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모를 대상으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본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산모 총 48명이며, 교육프로그램은 2013년7월에서 9월까지 구두교육과 실습교육으로 2주간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대상자의 지식점수는 2.27점에서 교육 후 2.81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부모효능감 점수도 2.69점에서 교육 후 2.8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교육만족도는 총점 4.12±0.5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출산 후 산모들의 신생아 양육 지식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이들의 양육 지식 뿐 아니라 부모효능감의 인지적 측면, 관심과 흥미 영역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신생아 양육 교육은 기본적으로면서도 정확한 설명 및 산모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산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구두설명과 아기모형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교육적 증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후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B시에서 운영되는 여성병원 한 곳에서 시행된 연구이므로 좀 더 확대하여 다른 지역이나 병

원에서 이와 같은 신생아 교육프로그램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A. I. Meleis., "Transition theory: middle range and situation specific theories in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MA, Springer publish company, 2010.
- [2] <http://health.mw.go.kr>;2011(accessed May, 20, 2013)
- [3] R. Rubin.,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Part I: Process" *Nursing Research*, 16(3), pp. 237-245. 1967.
- [4] G. S. Sim., H. J. Go., K. H. Ym., "A Study on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Mothers for the Infant Care"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6(2), pp. 287-296, 2002.
- [5] E. K. Yoo., Y. M. Ahn., "A Model for Community Based Mother Infant Care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5), pp. 932-947, 2001.
- [6]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191-215, 1977.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84.2.191>
- [7] H. S. Kim., Y. J. Sin., "Parent Efficacy as an Applicable Concept of Andragogy: Implications for Disabled Children's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ragogy Today*", *The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of Korea*, 16(1), pp. 59-84, 2003.
- [8] M. H. Park., "The Effect of Newborn Care Education on the Self Confidence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of Primipar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9.
- [9] H. K. Kim., I. S. Jeong., "Effect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Newborn Care Confidence and Behavioral Accuracy of Primiparas in a Postpartum Care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s*, 37(1), pp. 125-134, 2007.
- [10]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pp. 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11] Y. H. Kwak., "The effect of education on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of postpartum self-care and the newborn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1996.

- [12] J. Gibaud-Wallston., L. P. Wandersman.,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1978.
- [13] S. J. Shin., "Effect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1), pp.27-42, 1998.
- [4] K. A. Choi., "Comparative study of discharge teaching programs on newborn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2.
- [15] J. A. Maloni., "The content and sources of maternal knowledge about the infant" Maternal child Nursing Journal, 22(4), pp. 111-119. 1994.
- [16] K. J. Cho., Y. J., S. N. Park., "The Educational Needs and Satisfactory about Infant Care of the Mothers in the Post-partum Care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6(3), pp. 344-353, 2000.
- [17] D. L. Wong., M. Hockenberry-Eaton., D. Wilson., M. L. Winkelstein., P. H. Schwartz.,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St. Louis, Mosby, 2001.
- [18]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86.
- [19] K. J. Cho., K. J. Lee., O. J. Lee.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Program on Caring-Confidence and Rearing Attitude in Mothers with Newbor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5(1), pp. 84-96, 1999.
- [20] A. Solnick., S. Weiss., "High Fidelity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3(1), pp. 41-45, 2007.
- DOI: <http://dx.doi.org/10.1016/j.ecns.2009.05.039>

김 주 옥(Ju-Ok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04년 3월 ~ 2010년 2월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황 혜 민(Hye-Min Hwang)

[정회원]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